

총정칼럼

대학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길

이영선 한림대학교 총장

'반값' 등록금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잠시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이 등록금 인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대학을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 당국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있는 듯하다. 내년 초 새 학년도를 시작하면서 대학의 등록금에 어떤 형태이든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변화가 대학의 자율권이 무시된 채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의해 야기된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한 대학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이 변화가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길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흔히 언급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립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OECD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는 별 의미 없는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 OECD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을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료를 거의 받지 않고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립대학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에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에 사립대학도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과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다. 미국의 유수한 사립대(주립대의 경우도 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사립대에 준하는 수업료를 받음)의 경우 수업료와 생활비를 합해 년 간 약 4 내지 5만불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1천만원과 생활비를 넉넉잡아 1천만원이라 한다면 연간 약 2만불의 비용이 든다고 하겠다. 그런데 미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이 4만불이고 우리나라 일인당 소득이 2만불이니 미국의 대학교육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의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다지도 큰 문제가 야기 되는가? 이는 미국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학부모들에게는 필요에 근거한(need based)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기부문화가 발달되어서 민간 기부에 의한 장학금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학비를 크게 경감해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은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를 고려한 장학금은 극히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학비의 대부분을 결국 학생이 직접 부담하게 되어 있어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길은 결국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필요에 근거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의 등록금을 반으로 하자는 요청은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모두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또 전파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이다. 특히 국민 일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학교육의 비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바로 미국이 국민소득에 대비한 상대적 교육비용이 우리나라 보다 높다는 사실에 이를 말해 준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증가하는 대학의 비용을 충당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대학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일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해서는 결국 국가의 장래가 위협받게 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국가 혹은 민간의 기부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1970년 서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76년 동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까지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981년까지 한국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1981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부임 후, 부교수를 거쳐 2008년까지 동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다. 연세대학교에서 통일연구원장, 기획실장, 국제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비교경제학회 및 한국국제경제학회를 이끌었으며, 2007년에는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였다. 통일부 정책지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에서 연구자문위원으로 일하는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많은 자문활동을 하였다. 국제경제학, 경제정책, 이항경제학, 북한경제와 관련된 많은 논문 및 저서가 있으며, 이런 공로로 1986년 한국경제학회 청람학술상, 1990년에 연세학술상을 받았다. 2008년 2월부터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